

이중타동사 구문에 대한 유형론 연구

— 여격 구문과 이중목적어 구문을 중심으로*

김 종 명 (서울대학교)

• 목 차 •

- I. 서론
- II. 선행연구의 문제점
- III. 작업가설의 제시 및 사전 논의
- IV. 여격/이중목적어구문 쌍의 이중타동사 구문 분석
- V. 단일 여격구문의 이중타동사 구문 분석
- VI. 여격구문 쌍의 이중타동사 구문 분석
- VII. 이중타동사 구문 분석의 종합
- VIII. 결론

I. 서 론¹⁾

give, sell, bring 등과 같이, 주어 외에 수령주 Recipient²⁾와 대상 Theme 논항을 지니는, 소유이전 표현의 이중타동사 ditransitive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3S1A5A2A01018601).

- 1) 이 논문에 대해 유익한 지적을 해 준 세 분의 심사자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
- 2) 여기서 ‘수령주’라 칭한 논항을, 특히 이 논항이 간접목적어로 실현된 구문에서는 ‘도착점 Goal’ 논항으로 분석한 연구도 많이 있다. Krifka (1999) 등 참조. ‘수령주’와 ‘도착점’ 논항에 대한 엄밀한 정의와 구분은 뒤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때까지는 이 문제를 열어 둔 채 ‘수령주’가 편의적 명칭으로 사용된다.

verb들이 범어적으로 어떤 구문 형태를 취하는가 보면, 우선 영어, 아랍어³⁾ 같이, 대상 논항은 직접목적어, 수령주 논항은 간접목적어로 실현되는 구문((1-2a))과 대상, 수령주 논항이 모두 직접목적어⁴⁾로 실현되는 구문((1-2b))을 쌍으로 갖는 언어들 존재한다.⁵⁾

- (1) a. I give two books to Mary.
- b. I give Mary two books.

(2) 아랍어(Haspelmath 2005)

- a. ?aʕta al-muʕlam-u kitaab-an li al-taalib-i
 Gave-3ms the-teacher-nom book-acc to the-student-gen
 “The teacher gave a book to the student.”
- b. ?aʕta al-muʕlam-u al-taalib-a kitaab-an
 Gave-3ms the-teacher-nom the-student-acc book-acc
 “The teacher gave the student a book.”

그리고 프랑스어, 한국어처럼, 대상 논항은 직접목적어, 수령주 논항은 간접목적어로 실현되는 여격구문((3-4a))만 가능하지 이중목적어구문((3-4b))은 갖지 않는 언어들 존재한다.^{6),7)}

3) 이 연구에서 아랍어는 현대 표준 아랍어를 지칭한다.
 4) 이 연구에서 ‘직접목적어’와 ‘간접목적어’는 다음 의미로 사용된다. ‘직접목적어’는 해당 언어의 단일타동사 **monotransitive verb**가 취하는 대상 의미역의 목적어 논항과 같은 형태의 목적어 논항을 지칭한다. ‘간접목적어’는 해당 언어의 단일타동사가 취하는 대상 의미역의 목적어 논항과 다른 형태의 목적어 논항을 지칭한다.
 5) 이 연구는 이하에서 편의 상, (1-2a)와 같은 형태의 이중타동사 구문을 ‘여격구문’, (1-2b)와 같은 이중타동사 구문을 ‘이중목적어구문’이라 부른다.
 6) 여러 언어의 “give” 의미를 표현하는 이중타동사 구문의 형태를 조사한 Haspelmath (2005)에 의하면, 378개 조사언어 중, 한국어, 프랑스어 같이 여격구문만 갖는 언어는 189개, 영어와 같이 여격구문과 이중목적어구문을 둘 다 갖는 언어는 39개이다.
 7) 한국어의 대표적인 소유이전 이중타동사 주다⁷⁾는 다음에 보는 바와 같이 이중목적어구문도 취하는 것처럼 보인다.
 (예) 그는 (나에게 + 나를) 물을 주었다.

- (3) a. Je donne deux livres à Marie.
 b. *Je donne Marie deux livres.
- (4) a. 나는 철수에게 책을 선물한다.
 b. *나는 철수를 책을 선물한다.

그런데 어떤 보편문법 원리나 매개변수가 언어들 간에 이런 이중타동사 구문 실현의 차이를 낳는가의 문제는 아직 잘 규명되지 않았다. 이에 대한 선행연구로 Dryer (1986), Harley (2003), Johnson (1991), Kayne (1984), Krifka (2003), Larson (1988), Levin (2008), Malchukov & alii. (2007), Rappaport Hovav & Levin (2008), Tremblay (1991) 등이 있다. 그러나 이 선행연구들이 제시한 원리적 설명은 이 연구들이 대상으로 삼지 않은 다른 언어들에 적용, 검증해 보면 잘 작동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연구의 최초 목표는 어떤 언어학적 원리로 이 두 부류 언어의 소유이전 표현 이중타동사 구문의 실현방식 차이를 설명할 수 있을지 모색하는 것이었고 이를 위해 27개 언어의 소유이전 표현 이중타동사 구문을 대상으로 삼았다. 그렇지만 필자는 27개 언어의 관찰과정에서 이중타동사가 이중목적어구문으로 실현되지 않고 여격구문으로만 실현되는 언어도 다시 두 부류로 구분되어야 함

그렇지만 한국어의 다른 소유이전 이중타동사들은 거의 일관되게 이중목적어구문을 취하지 않는다.

- (예) a. 그는 나에게 물을 (선사했다 + 제공했다 + 선물했다 + 넘겼다 + 맡겼다).
 b. 그는 나를 물을 (*선사했다 + *제공했다 + *선물했다 + *넘겼다 + *맡겼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타 동사의 이러한 행태는 가타 동사의 다음과 같은 행태와 함께 문법화될 수 없는 개별 어휘의 예외적 행태라 판단된다.

- (예) a. 그가 학교에 (갔다 + 도착했다 + 다다랐다 + 이르렀다).
 b. 그가 학교를 (갔다 + *도착했다 + *다다랐다 + *이르렀다).

을 알았다. 왜냐하면 이중타동사가 소유이전 표현 시 단일 여격구문으로 실현되는 프랑스어 같은 부류가 있고 타밀, 불가리아어 같이 한 쌍의 여격구문으로 실현되는 또 다른 부류가 있기 때문이다.⁸⁾ 이중타동사가 한 쌍의 여격구문으로 실현되는 타밀의 예는 아래와 같다.

(5) 타밀(Sundaesan 2006)

- | | | | | |
|----|-----------------------------|------------|-------------|-----------------|
| a. | n̄an | raman-ukku | korenday-ai | kudu-tt̄en |
| | I-NOM | raman-DAT | book-ACC | gave-1sg |
| | “I gave the book to Raman.” | | | |
| b. | n̄an | raman-ukku | korenday-ai | kudu-kudu-tt̄en |
| | I-NOM | raman-DAT | book-ACC | gave-Ben-1sg |
| | “I gave Raman the book.” | | | |

그래서 이 연구의 수정된 목표는 이 세 부류 언어의 소유이전 표현 이중타동사 구문의 실현 방식 차이에 대한 원리적 설명을 모색하는 것이 되었다. 그리고 이 연구는 모색 결과, 이중타동사의 범어적 구문 실현 양상의 차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설명가설을 제시했다. 첫째, 영어와 같이 이중타동사가 여격구문과 이중목적어구문 쌍으로 실현되는 언어의 여격구문은, 소유이전 표현 시 통사 구조와 의미 구조 간의 부조화 *mismatch*가 일어나고 이 부조화를 피하기 위해서 이중목적어구문을 필요로 한다. 둘째, 타밀 같이, 소유이전 표현 시 이중타동사가 여격구문 쌍으로 실현되는 언어도 두 여격구문 중 한 구문이 통사-의미 구조 간의 부조화를 지녀서 이 부조화를 해소하기 위해 나머지 하나의 여격구문을 갖는다. 셋째, 프랑스어와 같이 이중타동사가 단일 여격구문으로 실현되는 언어들은 모두 그 여격구문이 소유이전 표현 시 의미역 위계 가설에 잘 부합되는 구조를 지

8) 대상언어 중 칸나다는 예외적으로 이중타동사가 한 쌍이 아닌 두 쌍의 여격구문으로 실현된다. 그렇지만 뒤에서 보는 것처럼 이 두 쌍의 여격구문도 한 쌍의 여격구문과 같은 부류에 속한다.

녀서 통사-의미 구조 간의 부조화를 일으키지 않는다. 따라서 이 연구는 소유이전 표현 시 이중타동사 구문에 통사-의미 구조 간 부조화가 없는 언어는 모두 단일 여격구문을 갖지만 통사-의미의 부조화를 보이는 여격구문의 언어는 이 부조화를 해소하기 위해 또 하나의 구문을 갖는데 이 구문은 언어에 따라 이중목적어구문으로 실현되기도 하고 또 다른 형태의 여격구문으로 실현되기도 한다는 설명 가설을 제시한다.⁹⁾

이 연구의 이하 본론 내용은 이런 설명 가설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리고 27개 대상언어의 이중타동사 구문은 이런 설명 가설을 어떻게 지지하고 있는지를 보이는 것이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2절에서는 이 연구의 주제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선행연구의 문제점을 제시한다. 제3절에서는 이중타동사 구문 분석을 위해서 이 연구가 채택한 작업가설을 설명한다. 제4-6절에서는 27개 대상언어의 이중타동사 구문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제4절에서는 영어와 같은 여격/이중목적어구문 쌍의 이중타동사 구문 분석을 제시하고 제5절에서는 프랑스어와 같은 단일 여격구문의 이중타동사 구문에 대한 분석을 제시한다. 또 제6절에서는 타밀과 같은 여격구문 쌍의 이중타동사 구문 분석을

9) 앞서 언급한 Haspelmath (2005)에 의하면, 378개 조사대상 언어 중, 여격구문만 갖는 189개 언어, 여격구문과 이중목적어구문을 갖는 39개 언어 외에, 이중목적어구문만 갖는 언어 84개, 수령주 논항이 직접목적어로, 대상 논항이 간접목적어로 나타나는 구문을 갖는 언어 66개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이 연구가 추구하는 최종 목표에 이르려면, 이 연구가 대상으로 삼은 첫 두 유형(물론 이 연구는 첫 번째 유형을 다시 두 유형으로 세분하였다)의 언어 외에, 나머지 두 유형의 언어도 함께 다루어야 마땅하다. 그렇지만 필자는 처음부터 네 유형을 함께 다루는 것은 연구 범위가 방대할 뿐 아니라 선행연구가 없는 작업이어서 우선 첫 두 유형을 다루는 것도 네 유형에 대한 종합연구로 나가는 단계연구로 유의미하다 판단하였다. 게다가 필자는, 이 연구에서 다루려는 두 유형에 대해서는 이미 선행연구들을 통해 논의가 시작되었고 또 이 선행연구들이 제시하는 설명가설이 문제점을 지니고 있으므로, 기존 논의에 대한 비판을 토대로 두 유형 언어의 이중타동사 구문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제시한다. 본론의 마지막 절인 제7절에서는 27개 언어의 이중타동사 구문 분석의 결과를 종합, 정리하여 제시한다.

끝으로 이 연구가 다룬 27개 언어의 이중타동사 구문을 명확하게 한정한다. 앞서 영어의 소유이전 표현의 이중타동사는 여격구문과 이중목적어구문을 갖고 프랑스어는 여격구문만을 갖는다고 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프랑스어의 경우, “give” 개념 표현의 이중타동사 *donner*는 여격구문을 취하지만, 다른 소유이전 표현 이중타동사들 중에는 아래와 같이 대상 논항이 간접목적어, 수령주 논항이 직접목적어로 실현되는 구문을 취하는 것도 발견된다.

- (6) a. Il a chargé Marie de compliments.
- b. J’ai comblé l’enfant de cadeaux.
- c. Il faut avertir Marie que Pierre viendra.
- d. Il m’a informé qu’il refusait.

영어의 경우도, “give” 개념 표현의 이중타동사 *give*는 여격구문과 이중목적어구문을 취하지만, 다른 소유이전 표현 이중타동사들 중에는 아래와 같이 대상 논항이 간접목적어, 수령주 논항이 직접목적어로 실현되는 구문을 취하는 것도 있다.

- (7) a. Foreign governments supplied the rebels with arms.
- b. We are here to provide the public with a service.
- c. The committee has been charged with the development of sport in the region.

여기서는 (6-7)과 같은 형태의 이중타동사구문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즉 이 연구가 다룬 각 언어의 이중타동사구문은 “give” 개념 표현을 위해 실현되는 이중타동사 구문 형태로만 제한한다.¹⁰⁾

II. 선행연구의 문제점

서론에서 언급한 대로 이 연구가 제기하는 문제를 다룬 여러 선행연구들이 있지만 이 선행연구들은 모두 이 문제에 대해 만족스런 설명을 제시하지 못했다. 연구자가 살펴본 선행연구는 Dryer (1986), Harley (2003), Johnson (1991), Kayne (1984), Krifka (2003), Larson (1988), Levin (2008), Malchukov & alii. (2007), Rappaport Hovav & Levin (2008), Tremblay (1991)이다. 이 연구들의 분석과 문제점을 차례로 제시한다.

Kayne (1984)는 이중타동사 구문으로 여격구문과 이중목적어구문 쌍을 갖는 언어는 의문사 이동에서 전치사 좌초 *preposition stranding*를 허용하는 언어라고 주장했다. 그에 의하면, 이중목적어구문과 전치사 좌초, 이 두 현상은 격이론이라는 동일 원리에 지배된다. 그래서 영어는 이중목적어구문과 전치사 좌초를 동시에 허용하고 프랑스어는 전치사 좌초를 허용하지 않아 이중목적어구문도 허용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Zhang (1990)에 의하면, 중국어는 전치사 좌초를 허용하지 않지만 여격구문과 이중목적어구문을 둘 다 갖고 Lefèvre (1994)에 의하면, 콩베 Fongbe도 전치사 좌초를 허용하지 않지만 여격구문과 이중목적어구문을 갖는다.

Larson (1988)은 이중목적어구문을 갖는 언어는 수령주 논항을 주어로 하는, 대응 수동구문을 갖는 언어라고 분석했다. 그에 의하면, 이 두 구문은 동일한 통사 구조를 지닌다. 그는 영어가 (8a) 이중목적어 구문을 갖는 것은 (8b) 대응 수동구문을 갖기 때문이고 프랑스어가 (9a) 이중목적어구문을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9b) 대응

10) 실제로 27개 대상 언어에서 “give” 개념 표현을 위해 실현되는 이중타동사 구문 형태가 각 언어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이중타동사의 구문 형태, 즉 이중타동사 구문의 무표향 형태라고 판단된다.

수동구문을 못 갖는 이유와 동일하다고 보았다.

- (8) a. John sent Mary a letter.
 b. Mary was sent a letter by John.
- (9) a. *Jean envoie Marie une lettre.
 b. *Marie est envoyée une lettre par Jean.

그러나 Coleman (2007)에 따르면, 네덜란드어는 (10a)의 이중목적어구문을 갖지만 (10b)의 대응 수동구문은 갖지 않는다.

- (10) a. De man gaf de vrouw twee boeken.
 "The man gave the woman two books."
 b. *?De vrouw werd twee boeken gegeven (door de man).
 "The woman was given two books (by the man)."
 c. Twee boeken werden de vrouw gegeven (door de man).
 "Two books were given the woman (by the man)."

또 Mohanan (1994)에 의하면, 힌디어는 이중목적어구문을 갖지 않지만 대응 수동구문을 갖고 이와 반대로 풍베는, Lefèvre (1994)에 따르면, 이중목적어구문을 갖지만 대응 수동구문이 없다.

한편 Tremblay (1991)에 의하면, 명사구 내 소유주와 소유물 논항의 상호 위치는 이중목적어구문의 존재 여부를 결정한다. 영어는, (11a)처럼 소유주가 소유물 논항 왼편에 위치하여 의미역을 부여받는다. 이는 이중목적어구문의 수령주와 대상 논항의 상호 위치와 동일하다. 따라서 이중목적어구문이 허용된다. 반면에 프랑스는, (11b)처럼 소유주가 소유물 오른편에 위치하여, 이중목적어구문의 수령주와 대상의 상호 위치와는 다르다. 따라서 이중목적어구문이 허용되지 않는다.

- (11) a. John's book
 b. le livre de Jean

그렇지만 한국어와 일본어는 명사구 내 소유주와 소유물 논항의 상호 위치가 영어와 동일하나 이중목적어구문을 허용하지 않는다. 또 Harrell (2004)에 따르면, 아랍어는 소유주와 소유물 논항의 상호 위치가 영어와 반대이나 이중목적어구문을 허용한다.

Johnson (1991)은 속격 Genitive Case과 이중목적어구문 사이의 상관관계를 주장했다. 그에 의하면, 영어는 *s* 형태의 속격이 존재하여 이중목적어구문을 허용하고 프랑스어는 속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중목적어구문이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속격이 존재하는 독일어, 러시아어, 조르지아어 그리고 속격이 존재한다고 일반적으로 간주되는 한국어와 일본어는 모두 이중목적어구문을 갖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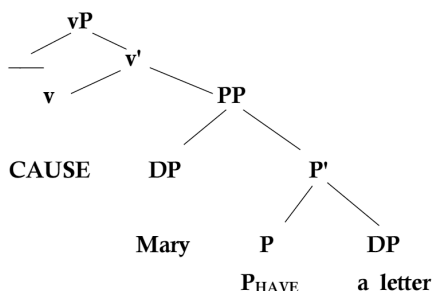
Krifka (2003), Levin (2008), Malchukov & alii. (2007), Rappaport Hovav & Levin (2008)에 의하면, *give* 등의 영어 이중타동사가 여격구문과 이중목적어구문을 함께 지니는 이유는 원칙적으로 정보구조 information structure의 차이를 드러내기 위함이다.¹¹⁾ 영어 구문에서, 선행 문요소는 구(舊)정보의 주제 Topic, 후행 문요소는 신정보의 초점 Focus 기능을 하는데, 어순이 고정된 영어는 이중목적어구문을 통해, 수령주 논항이 구정보임을, 여격구문을 통해, 대상 논항이 구정보임을 각각 표현한다고 한다. 이 원리는 다른 언어에도 적용되어, 여격과 향격 allative의 형태적 구분이 있고 어순이 자유로운 러시아어, 독일어는 어순 변화를 통해 정보구조의 차이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여격구문만 있고 이중목적어구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렇지만 프랑스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는 모두 영어처럼 어순이 자유롭지 않은 언어이고 선행 문요소는 구정보, 후

11) Malchukov & alii. (2007)는 Haspelmath (2006)과 함께, <Max Planck Institute for Evolutionary Anthropology>에서 수행한 이중타동사 구문 유형론 연구의 중간결과물이다. 이 연구는 여러 언어의 이중타동사 구문에 관한 다양하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렇지만 우리 연구의 주제는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아 위에 언급한 내용 외에 주제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참고할 것은 없었다.

행 문요소는 신정보를 나타내는 경향을 갖지만¹²⁾ 이중목적어구문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 인도네시아어, 아체, 그리스어¹³⁾는 여격구문과 이중목적어구문을 갖지만 영어와 달리, 어순이 자유롭다.¹⁴⁾

한편, Harley (2002)에 의하면, 언어보편적으로 이중목적어구문은 소유주(= 수령주) 논항이 소유물(= 대상) 논항을 지배하는 (12)의 통사구조를 지니고 여격구문은 대상 논항이 장소 논항을 지배하는 (13)과 같은 통사구조를 지닌다고 분석한다.¹⁵⁾

(12) 이중목적어구문 : I give Mary a letter



12) 예를 들어, 아래 예문의 밑줄 친 프랑스어의 좌치 *dislocation à gauche*된 문요소는 구정보, 우치된 문요소는 신정보를 나타낸다. 유종숙(200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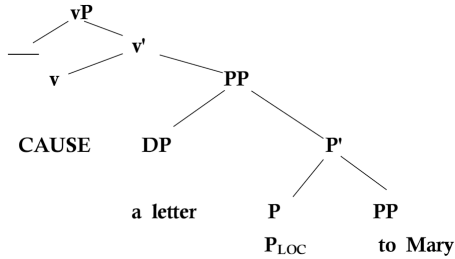
(예) Paris, je l'aime. (좌치, 구정보) // Je l'aime, Paris. (우치, 구정보)

13) 이 연구에서 그리스어는 현대 그리스어를 지칭한다.

14) 인도네시아어로 Chung (1976), 아체는 Dryer (1986), Haspelmath (2005), 그리스어는 Kordoni (2004) 참조.

15) 이중목적어구문의 제1목적어의 의미역이 수령주라는 것 그리고 여기서 수령주란, 이 구문이 표현하는 소유이전 사건이 낳는 새로운 소유주인 이상, 소유주와 동일한 의미역이라는 것은 널리 받아들여지는 분석이다. Barnes (1980), Hale & Kayser (2002), Herslund (1988), Krifka (2003), Levin (2008), Malchukov & alii. (2007), Pinker (1989) 등 참조. 연구자도 이에 동의하여, 이후 소유주와 수령주는 동의어로 사용한다. 단 여격구문의 간접목적어가 담당하는 의미역에 대해서는, 연구에 따라 견해가 엇갈린다. Harley (2002)는 간접목적어가 수령주가 아니라 도착점 의미역을 지닌다고, 즉 대상의 이동경로의 종착점으로 해석된다고 보았다. 여격구문의 간접목적어가 지니는 의미역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언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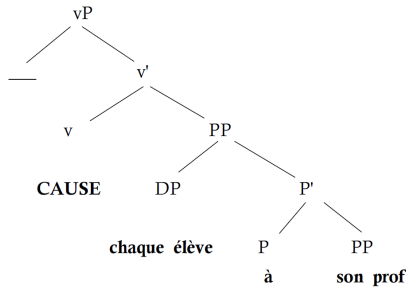
(13) 여격구문 : I give a letter to Mary



그리고 “소유”와 “존재” 개념이 어휘적으로 구별되는 영어 등의 언어는 (12) 구조의 이중목적어구문과 (13) 구조의 여격구문을 다 갖는 반면, “소유”와 “존재” 개념이 어휘와 통사, 어느 차원에서도 구별되지 않는 아일랜드어나 나바호 등에는 (12) 구조의 이중목적어 구문은 없고 (13) 구조의 여격구문만 존재한다고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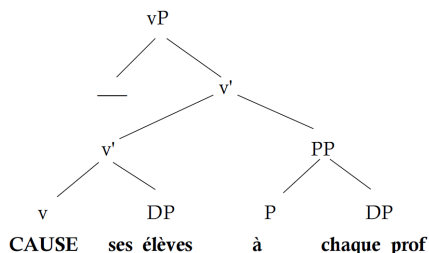
그렇지만 프랑스어와 한국어는 이 설명의 반례를 구성한다. 우선 “소유”와 “존재” 개념이 서로 다른 어휘 *avoir*와 *être*로 나타나는 프랑스어는 (13')에서 보는 것처럼, (13) 구조를 갖는다. 그러나 (12)의 구조는 지니지 않으며, (12), (13) 구조와 다른 또 하나의 구조인 (14)의 구조를 지닌다.¹⁶⁾

(13') (= (13)) 여격구문 : Il présente chaque élève à son pro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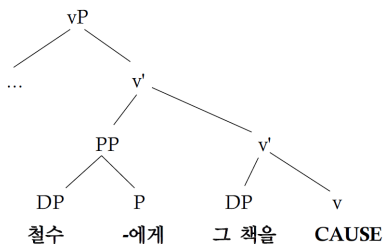
16) 이런 프랑스어 구문 분석의 근거는 뒤에서 제시한다.

(14) 여격구문 : Il présente ses élèves à chaque prof.



한편 “소유”와 “존재” 개념이 어휘적으로 구별되지 않아 두 개념 다 *있다* 구문으로 표현되는 한국어는 (12)과 (13)의 구조를 모두 지니지 않고 대신 (15)의 구조를 지니는데, 이 구조는 프랑스어의 (14) 구조와 동일한 것이다.¹⁷⁾

(15) 나는 철수에게 그 책을 선사했다.



따라서 Harley (2002)의 설명은 프랑스어, 한국어의 이중타동사 구문 구조에 부합되지 않는다.

끝으로 Dryer (1986)는 여격구문과 이중목적어구문 간에 파생관

17) 여기서 한국어와 프랑스의 동사 위치의 차이는 논의에 비관여적인 요소이다. 한국어 이중타동사 구문의 이런 구조 분석의 근거는 Kim (2004, 2013), Kim (2008) 등을 참조하되, 뒤에서 다시 언급한다. 또 Kuno (1973)에 따르면, 일본어 여격구문도 (15)과 유사한 구조를 지닌다.

계를 맺어 주는 언어보편적 성격의 반여격 규칙 *Antidative rule*을 제시하였다. 이 규칙은, 초기 생성문법이 이 두 구문 간에 일반적으로 설정했던 파생규칙과는 반대로, 여격구문을 이중목적어구문에서 파생시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 규칙은 왜 영어와 같이, 여격구문과 이중목적어구문을 함께 갖는 언어에는 수의적으로 적용되고 여격구문만 갖는 언어에는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그러므로 이 규칙은 여격구문의 언어와 여격/이중목적어구문의 언어 간의 차이에 대한 문법원리적 설명에는 기여하는 바가 없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선행연구들은 어떤 문법적 원리가, 영어, 아랍어 등의 이중타동사는 여격/이중목적어구문을 갖게 하고 프랑스어, 한국어 등에서는 그것을 불가능하게 하는가를 설명하려 했으나 만족스런 설명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게다가 이 연구들은 이중타동사가 여격구문으로만 실현되는 경우에도 단일 구문을 갖는 언어와 복수의 구문을 갖는 언어가 존재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하지 않아서 이에 대한 아무런 설명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III. 작업가설의 제시 및 사전 논의

제3절에서는 이 연구가 대상으로 삼은 27개 언어의 이중타동사 구문 분석을 위해 채택한 작업가설을 제시하고 또 구문 분석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전 논의를 한다.

이 연구는 다음 세 가설에 입각하여 논의를 전개한다.

첫째, 이 연구는 의미역 위계 가설 *Theta-Role Hierarchy Hypothesis*¹⁸⁾에 입각하여, 소유주 논항은 대상 논항보다 통사적 위

18) Perlmutter & Postal (1984) 등 참조. 의미역 위계 가설은 언어학 논의에 널리

계가 더 높고 대상 논항은 장소 논항보다 통사적 위계가 더 높다는 주장을 전제한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이런 통사-의미 간의 연결 규칙성 *linking regularity*을 반영하는 다음과 같은 의미역 위계 가설을 받아들인다.

(16) Bresnan & Kanerva (1989)의 의미역 위계 가설

Agent > ... > Recipient (Possessor)/Experiencer > ... > Theme > Location/Goal/Source¹⁹⁾

둘째, Harley (2002), Kim (2004)의 논의를 받아들여, 언어들 중에는 소유주 논항과 장소 논항의 구별이 있어 두 논항을 모든 지닌 언어와 소유주, 장소 논항의 구별이 없어 소유주 논항은 없고 장소 논항만 지닌 언어가 있다는 주장을 전제한다. Harley (2002), Kim (2004)에 따르면, 언어 중에는 소유주 논항과 장소 논항이 어휘/통사 차원에서 구별되게 존재하는 언어가 있고 두 논항이, 형식적 구별이 없어, 장소 논항으로 통합되고 소유주 논항이 없는 언어가 있다.²⁰⁾

전자 언어는 소유주 논항이 대상 논항을 지배하고 대상 논항이 장소 논항을 지배하는 통사 구조를 지니며 대개 “소유”와 “존재” 개념이 서로 구별된 어휘로 표현된다. 반면 후자 언어는 소유주 논

사용되는 가설이어서 이 가설을 정당화하기 위한 별도의 논의를 여기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게다가 이 연구의 논의 결과는 이 가설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것이다.

- 19) 단 한국어와 일본어는 장소 논항이 대상 논항을 지배하는 통사구조를 지닌다고 판단된다. 그 근거를 여기서 제시하기에는 지면의 제약이 있다. 이 판단은 일본어는 Kuno (1973), 한국어는 Kim (2004, 2013), Kim (2008) 등에 근거한 것이다.
- 20) 소유주/장소 논항의 형식적 구별이 없는 경우, 선형적으로는, 장소 논항이 아니라 소유주 논항만 있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언어보편적으로 “소유주” 개념은 “장소” 개념에서 미분화된 것이라는 Kuryiowicz (1964), Aristar (1996) 등의 *Localist Hypothesis*를 받아들여 그런 경우 장소 논항만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고 연구자의 직관에도 부합된다.

항이 대상 논항을 지배하는 통사 구조는 없고 오직 대상 논항이 장소 논항을 지배하는 통사 구조만 지니며 “소유”와 “존재” 개념이 어휘적으로 구별되지 않는다.²¹⁾

전자 언어에 속하는 언어로 영어와 히브리어가 있다. 영어는 소유주와 장소 논항의 통사적 구분이 있을 뿐 아니라 “소유”와 “존재” 개념이 어휘적으로 구분되어 “소유”는 *have* 동사로, “존재”는 *be* 동사로 표현된다. 히브리어는 “소유”와 “존재”의 어휘적 구분은 없으나 소유주와 장소 논항이 통사적으로 구분된다. (17)에서 보는 것처럼, 히브리어는 소유구문이 장소/존재 구문과 동일한 동사로 표현된다.

(17)

- a. 소유구문 : **Le-Dani_i** yeS/haya/yihiye **et axiv_i**.
 To-Dan_i exist/was/will be Acc brother.his_i.
 “Dani has/had/will have his brother.”
- b. 존재구문 : YeS sefer ba-sifriya/Õal ha-madaf.
 Exist book in-the-library/on the-shelf
 “There is a book in the library/on the shelf.”
- c. 장소구문 : YeS Õet ha-sefer ha-ze ba-sifriya/Õal ha-madaf.
 Exist Acc the-book the-this in-the-library/on the-shelf
 “This book is (to be) found in the library/on the shelf.”

그렇지만 히브리어는 소유주와 장소 논항이 통사적으로 구분된다. (17a)의 소유구문과 (18)의 여격구문에서, 소유주 논항은 대상 논항

21) 이 연구는 “소유”와 “존재”의 두 개념에 어휘적 구별이 있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존재구문의 무표적 술어 어휘 *있다*가 소유구문의 무표적 술어로도 쓰이는 한국어는 두 개념이 어휘적으로 구분되지 않는 언어이고, 존재구문의 무표적 술어 어휘 *be*가 소유구문의 무표적 술어로 쓰이지 않으며 소유구문의 무표적 술어로 *have*라는 별개의 어휘가 있는 영어는 두 개념이 어휘적으로 구분되는 언어이다.

을 지배하고 결속한다. 그렇지만 (19)의 장소구문에서는 대상 논항이 장소 논항을 지배하고 결속한다. 참고로 재귀현상은 표층구조에서 선행사가 재귀사를 성분통어할 때 일어난다는 것이 널리 받아들여지는 분석이다.²²⁾

(18) 여격구문(Borer & Grodzinsky 1986)

dan	her'a	la-tinoket_i	et	acma_i .
Dan	showed	to-the-baby _i	ACC	herself _i

“Dan showed the baby herself.”

(19) 장소구문(Borer & Grodzinsky 1986)

- a. yosef holix **et ha-tinoket_i** **le-acma_i**;
 Yosef walked ACC the-baby_i to-herself_i;
 “Joseph walked the baby to herself.”
- b. *yosef holix **et acma_i** **le-tinoket_i**;
 Yosef walked ACC herself_i to-the baby_i;
 “Joseph walked the baby to herself.”

반면 후자 언어에 속하는 한국어와 아일랜드어는 “소유”와 “존재”의 어휘적 구분도 없고 소유주와 장소 논항의 통사적 구분도 없다. 아일랜드어는 (20)에서 보는 것처럼, “소유”와 “존재”를 구분하는 어휘가 없어 소유구문과 장소/존재 구문이 한 동사로 표현된다.

(20) 아일랜드어(Harley 2002)

- a. 장소구문 : Tá an mhin sa phota
 BE the (oat)meal in.the pot
 “The oatmeal is in the pot.”
- b. 존재구문 : Tá min sa phota
 BE oatmeal in.the pot

22) Büring (2003) 참조.

“There is oatmeal in the pot.”

- c. 소유구문 : Tá an peann ag Máire
 BE the pen at Mary
 “Mary has the pen.”

그리고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유구문에서 소유주 논항이 대상 논항을 결속하지 못하며 (22)의 여격구문에서도 소유주 논항이 대상 논항을 지배하지 못하고 대상 논항이 소유주 논항을 지배한다. 그러므로 이 언어는 소유주와 장소 논항의 구별이 없이 장소 논항만 존재하며 이 장소 논항이 대상 논항에 지배되는 통사구조를 이룬다.

(21) 아일랜드어 소유구문(Harley 2002)

- *Tá a_i pheann-fhéin ag chuire, bhuachill
 BE his_i pen-self at every_i boy
 “Every boy has his pen.”

(22) 아일랜드어 여격구문(Snyder 2003)

- a. Minä esittelin Liisan ja Marin toisilleen.
 I-NOM introduced Liisa-ACC and Mari-ACC each-other-ALL-Px34
 “I introduced Liisa and Mari to each other.”
- b. *Thug Míleo a_i pheann-fhéin do chuire, bhuqchqill.
 gave Milo his_i pen-self to every_i boy
 “Milo gave every body his pen.”

이제 논의에 필요한 세 번째 작업가설을 제시한다. 이는 여격/이중목적어구문 쌍을 이루는 여격구문과 이중목적어구문 간의 의미 차이에 관한 것이다. 이 두 구문 간에 의미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그간 많은 논의와 다양한 주장이 있었다.

그렇지만 필자는 Rappaport H. & Levin (2008)의 논의를 받아들여, 언어보편적으로 이 구문 쌍의 이중목적어구문은 제1목적어가 수

령주(또는 소유주) 의미역, 제2목적어는 대상 의미역을 부여받아서 (23)에서 보는 것처럼, “소유이전” 의미를 나타내고 대응되는 여격 구문은 (24)에서 보는 것처럼, 동사에 따라 달라, *give* 동사류의 경우는 여전히 “소유이전” 의미를 표현하나 *send, bring, throw* 동사류의 경우는 “소유이전”, “소유물 이동”을 둘 다 표현한다고 본다.^{23),24)}

(23) <소유이전>

- a. I give Mary_(Possessor) the book_(Theme).
 (= I CAUSE [Mary HAVE the book])
- b. I send Mary_(Possessor) the book_(Theme).
 (= I CAUSE [Mary HAVE the book])

(24)

a. <소유이전>

- I give the book_(Theme) to Mary_(Possessor).
 (= I CAUSE [Mary HAVE the book])

23) 두 구문의 의미차이가 없다는 Larson (1988) 등의 주장과 두 구문의 의미차이가 있다는 Krifka (1999), Rappaport H. & Levin (2008) 등의 주장이 있다. 후자의 주장은 Krifka (1999) 등의 주장과 Rappaport H. & Levin (2008)의 주장으로 다시 세분되는데, 전자는 동사에 상관없이 이중목적어구문은 항상 “소유이전”을 나타내고 여격구문은 항상 “소유물 이동”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반면 후자는 여격구문의 의미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동사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다.

Rappaport H. & Levin (2008)의 주장은 다음 같이 다시 요약될 수 있다. 영어 전치사 *to*는 여격과 향격 표지로 함께 사용되는데 *give* 동사류 구문은 *to*가 여격으로만 사용되어 “소유이전”을 나타내고, *send, bring, throw* 동사류 구문은 *to*가 여격과 향격 표지로 다 사용되어, 여격인 경우는 “소유이전”, 향격인 경우는 “소유물 이동”을 표현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언어에서도 여격 표지가 향격 표지로도 사용되는 경우는 여격구문이 이 두 의미를 중의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Rappaport H. & Levin (2008)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 논의를 전개하고 논의 결과를 통해, 이 주장이 범어적으로 유효함을 보일 것이다.

24) “소유이전”이란 원소유주(= 주어)로부터 수령주로의 대상물(= 직접목적어)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의미하고 “소유물 이동”이란 소유권 이전의 의미 없이 대상물의 위치 이동만을 나타낸다.

b. <소유이전> & <소유물 이동>

I send the book_(Theme) to Mary_(Possessor).

(= I CAUSE [Mary HAVE the book])

I send the book_(Theme) to Mary_(Goal).

(= I CAUSE [the book GO TO Mary])

IV. 여격/이중목적어구문 쌍의 이중타동사 구문 분석

이제 이상의 작업가설과 사전논의를 갖고서 27개 대상언어의 이동타동사 구문 분석을 한다. 우선 제4절에서는 여격/이중목적어구문 쌍을 갖는 언어인 영어, 중국어, 네덜란드어, 아랍어, 덴마크어, 그리스어의 이동타동사 구문 분석을 한다. 먼저 아래 영어의 이동타동사 여격구문과 이중목적어구문의 두 내재논항 간의 재귀현상을 살펴보자.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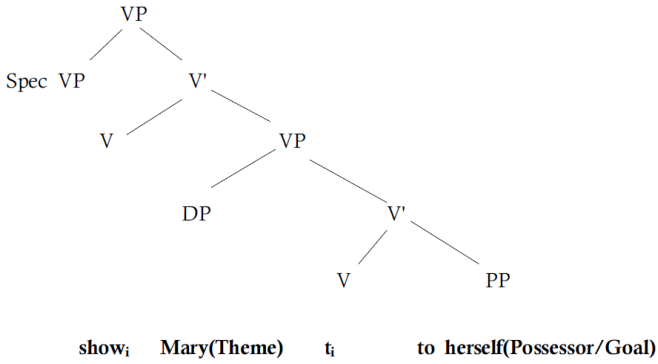
a. I show Mary to herself. ⇔ *I show herself to Mary.

b. I show Mary herself. ⇔ *I show herself M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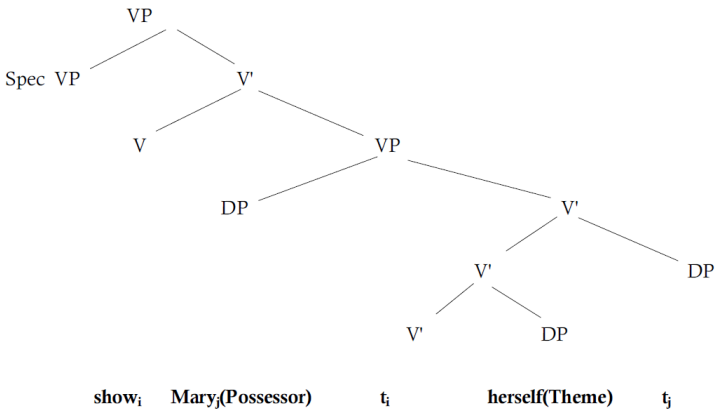
(25a) 여격구문에서 대상 의미역을 지닌 직접목적어는 수령주(또는 도착점) 의미역을 지닌 간접목적어의 선행사가 될 수 있지만 그 역은 불가능하다. 반면 (25b) 이중목적어구문은, 수령주 의미역을 지닌 제1목적어가 대상 의미역을 지닌 제2목적어의 선행사가 될 수 있지만 그 역은 불가능하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재귀현상은 표층구조에서 선행사가 재귀사를 성분통어할 때 일어난다는 것이 널리 받아들여지는 분석이다. 그러므로 이 분석에 입각할 때, (25a)의 여격구문은 직접목적어가 수령주(또는 도착점) 의미역의 간접목적어를

성분통어하고 (25b)의 이중목적어구문은 수령주 의미역의 제1목적어가 대상 의미역의 제2목적어를 성분통어하는 구조를 지녀야 한다. 실제로 Larson (1988)은 이런 재귀현상을 반영하여 (25a-b) 구문의 구조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26) (= (25a))



(27) (= (25b))



(27)의 경우는, 이 연구가 채택한 의미역 위계 가설에 부합되게 수령주가 대상보다 더 높은 통사적 지위를 점유한다. 그렇지만 (26)의 경우는 전치사구 *to herself*가 도착점 의미역을 부여받아 “소유물 이동”을 표현할 때는 의미역 위계 가설에 부합되는 통사구조를 이루지만 수령주 의미역을 부여받아 “소유이전”을 표현할 때는 의미역 위계 가설에 부합되지 않는 통사구조를 이룬다. 바로 이런 의미역 위계 가설에 부합되지 않는 통사구조를 지니기 때문에 이 여격구문 구조에는 (27)과 같은 의미역 위계 가설에 부합되는 이중목적어구문 통사구조가 대응쌍으로 존재한다. 이것이 이 연구의 설명가설이다.

필자는 영어와 같이 이중타동사 구문이 여격/이중목적어구문 쌍으로 나타나는 언어에서는 모두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여격구문이 “소유이전”을 표현할 때 통사 구조와 의미역 위계 사이의 부조화가 발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이중목적어구문이 존재한다고 설명하고자 한다.

영어 외에 여격/이중목적어구문 쌍을 지니는 언어로 중국어, 네덜란드어, 아랍어, 덴마크어, 그리스어가 있다. 이 언어들은 모두, 영어처럼, 여격구문에서 통사 구조와 의미역 위계 사이의 부조화가 일어난다. 우선 중국어의 경우를 보자.

(28)

- | | | | | | | |
|----|-----------------------------------|-----------|----------------------|------------------|-----------------|----------------------|
| a. | Ngoh | gaaisiuh | Leih | sinsaang; | bei | keuihjihge. |
| | I | introduce | Li _i | Mr. | to | himself _i |
| | “I introduced Mr. Li to himself.” | | | | | |
| b. | ??Ngoh | gaaisiuh | keuihjihge; | bei | Leih | sinsaang. |
| | I | introduce | himself _i | to | Li _i | Mr |
| | “I introduced himself to Mr. Li.” | | | | | |
| c. | Ngoh | gaaisiuh | Leih | sinsaang; | | keuihjihge. |
| | I | introduce | Li _i | Mr. | | himself _i |

“I introduced Mr. Li himself.”

Aoun & Li (1989)

중국어의 *bei*는 영어의 *to*처럼, 향격/여격 표지로 사용된다. 그런데 (28a-b)의 중국어 여격구문은 대상 의미역의 직접목적어가 소유주/도착점 의미역의 간접목적어를 성분통어한다.²⁵⁾ 반면 (28c)의 이중목적어구문은 소유주 의미역의 제1목적어가 대상 의미역의 제2목적어를 성분통어한다. 그러므로 이 연구의 설명가설에 입각할 때, (28a)의 여격구문은 “소유이전”을 표현할 때는, 의미역 위계에 부합되지 않는 통사구조를 이룬다. 그래서 중국어는 영어처럼 (28c)의 이중목적어구문을 지닌다.

다음으로 아랍어를 살펴본다. Alsadoon (2011)에 의하면, 아랍어의 이중목적어구문은 (29)에서 보는 것처럼, 소유주 의미역의 제1목적어가 대상 의미역의 제2목적어를 성분통어한다.

(29)

- | | | |
|------------------------------|--------------|--------------|
| a. ?.aray-t-u | Mohammed-an | nafsah. |
| Showed-I-nom | Mohammed-acc | himself. |
| “I showed Mohammed himself.” | | |
| b. *?.aray-t-u | nafsah | Mohammed-an |
| Showed-I-nom | himself | Mohammed-acc |
| “I showed himself Mohammed.” | | |

그렇지만 (30)에서 보는 것처럼, 여격구문의 경우는 대상 의미역의 직접목적어가 여격의 간접목적어를 성분통어한다. 아랍어의 *li*도 영어의 *to*처럼, 향격/여격 표지로 사용된다.

25) Lee (1986)에 의하면, 중국어의 (28a) 여격구문도 “소유이전”과 “소유물 이동” 의미를 지녀 중의적이거나 (28c)의 이중목적어구문은 “소유이전” 의미만 지닌다.

(30)

- | | | |
|---------------------------------|---------------|----------------------|
| a. ?axađa | al-feloos-a | li nafsah |
| took-3ms | the-money-acc | dat-to itself |
| “He took the money for itself.” | | |
| b. *?axađa | nafsah | li al-feloos-i |
| took-3ms | itself | dat-to the-money-gen |
| “He took itself for the money.” | | |

그러므로 이 연구의 가설에 입각할 때, (30a)의 여격구문은 “소유 이전”을 표현할 때는, 의미역 위계에 부합되지 않는 통사구조를 이룬다. 그래서 아랍어는, 영어처럼, (29a)의 이중목적어구문을 지닌다. 다음으로 네덜란드어의 예문을 보자.

- (31) a. Ik toon Johannes zelf.
 “I show John himself.”
 b. *Ik toon zelf aan Johannes.
 “I show himself to John.” (구글 프랑스)²⁶⁾

(31a)의 이중목적어구문은 소유주 의미역의 제1목적어가 대상 의미역의 제2목적어를 성분통어한다. 왜냐하면 전자가 후자인 재귀사 *zelf*의 선행사가 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31b)의 여격구문은 간접목적어가 재귀사 *zelf*가 분포한 직접목적어의 선행사가 될 수 없다. 네덜란드어의 *aan*도 향격/여격 표지로 사용된다. 따라서 (31b)에서 소유주/도착점 의미역의 간접목적어가 직접목적어를 성분통어하지 않는다.

또 다른 예문을 보자.

26) 예문의 인용처가 <구글 프랑스>인 것은 이 예문을 필자가 구글 프랑스에서 검색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예문들은 신뢰성에 있어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힌다.

- (32)a. Ik gaf twee paraplu's aan de mannen.
“I gave two umbrellas to the men.”
b. Ik gaf de mannen twee paraplu's.
“I gave the men two umbrellas.” (구글 프랑스)

(32a)의 여격구문도 직접목적어가 간접목적어를 성분통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직접목적어를 구성하는 양화사의 해석범위 안에 간접목적어가 들어 있기 때문이다. 즉 (32a) 구문의 의미는 “그 사람들 전체에게 주어진 우산의 총수는 두 개다”이다. 반면 (32b)의 이중목적어구문은 제1목적어가 제2목적어를 성분통어한다. 왜냐하면 제1목적어는 제2목적어의 양화사 해석범위 밖에 있기 때문이다. 즉 (32b) 구문은 “그 사람들은 각자 우산 두 개씩 주어졌다”이다. 이상의 관찰 결과, 네덜란드어 여격구문도 “소유이전”을 표현할 때, 의미역 위계에 부합되지 않는 통사구조를 이루어, 영어 처럼, 이중목적어 구문이 필요하다.

다음은 덴마크어의 경우이다.

- (33)a. Jeg viser Maria selv.
“I show Mary herself.”
b. *Jeg viser selv til Maria.
“I show herself to Mary.”
c. Jeg viser Maria til sig selv.
“I show Mary to herself.” (구글 프랑스)

덴마크어의 이중목적어구문은 (33a)에서 보는 것처럼, 제1목적어가 제2목적어인 재귀사 *selv*의 선행사가 되므로 제2목적어를 성분통어한다. 반면에 여격구문은 직접목적어가 소유주/도착점 의미역의 간접목적어를 성분통어하지 못한다. (33b)에서 보는 것처럼, 간접목적어가 재귀사 *selv*가 분포한 직접목적어의 선행사가 될 수 없기 때

문이다. 그 대신 여격구문은, (33c)에서 보는 것처럼, 직접목적어가 간접목적어의 재귀사 *sig selv*의 선행사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직접목적어가 간접목적어를 성분통어한다.

덴마크어의 *til*도 향격/여격 표지로 사용된다. 그러므로 덴마크어 여격구문도 “소유이전”을 표현할 때, 의미역 위계에 부합되지 않는 통사구조를 이루어, 영어처럼, 이중목적어 구문이 필요하다.

그리스어도 이 연구의 설명가설을 지지하는 또 다른 예이다.

- (34) a. Δείχνω Μαρία εαυτό της.
“I show Mary herself.”
- b. Δείχνω Μαρία για τον εαυτό της.
“I show Mary to herself.”
- c. I εαυτό δείξει στη Μαρία.
“I show herself to Mary.” (구글 프랑스)

(34a)의 이중목적어구문은 제1목적어가 제2목적어를 성분통어한다. 반면 (34b)의 여격구문은 직접목적어가 간접목적어를 성분통어한다. 그래서 직접목적어는 재귀사 *εαυτό της*가 분포한 간접목적어의 선행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여격구문의 간접목적어가 직접목적어 재귀사의 선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34c)에서 보는 것처럼, 성분통어 관계에서 자유로운 또 다른 재귀사 *δείξει*를 직접목적어로 써야 한다. 그러므로 그리스어 여격구문도 “소유이전”을 표현할 때, 의미역 위계에 부합되지 않는 통사구조를 이루어, 영어처럼, 이중목적어 구문이 필요하다.

V. 단일 여격구문의 이중타동사 구문 분석

그러면 이제 5-6절을 통해 여격구문만 지니는 언어를 살펴본다. 제5절에서는 이중타동사가 단일 여격구문으로 실현되는 언어의 여격구문을 살펴보고 제6절에서는 이중타동사가 여격구문 쌍으로 실현되는 언어의 여격구문을 살펴보겠다.

이중타동사가 단일 여격구문으로 실현되는 언어로는 조르지아어, 독일어, 힌디어, 우르두어, 러시아어, 체코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카탈로니아어, 포르투갈어, 루마니아어, 아일랜드어, 한국어, 핀란드어, 타히티어가 있다. 먼저 프랑스어의 예이다.

(35) (Miller 1992)

- a. Marie a présenté Jacques à Louise.
- b. Jean a présenté **chaque_i institutrice à ses_i élèves**. (= “소유물 이동”)
- c. Jean a présenté **ses_i élèves à chaque_i institutrice**. (= “소유이전”)

프랑스어는 이중타동사가 (35a)의 단일 여격구문을 지닌다. 그런데 프랑스어의 여격 표시 *à*는 향격 표시로도 사용된다. 그러므로 (35a)의 여격구문은 “소유이전”과 “소유물 이동”의 두 해석을 지니 중의적이다. 그런데 이 여격구문은 (35b-c)에서 보는 것처럼, 각 해석에 부합되게 통사구조가 달라진다. (35b)는 대상의 직접목적어가 도착점의 간접목적어를 성분통어하고 (35c)는 소유주 간접목적어가 대상 직접목적어를 성분통어한다. 이렇게 프랑스어는 여격구문이 통사적 중의성을 지니면서 의미역 위계에 부합된 구조를 지니므로 이중목적어구문 등의 또 하나의 이중타동사 구문을 갖지 않는다.

이탈리아어도 프랑스어와 동일한 경우이다.

(36) (Giorgi & Longibardi 1991)

- a. Una lunga terapia psicoanalitica ha restituito se stessa_i a Maria_i.
“A long psychoanalytic therapy restored herself to Maria.”
- b. Una lunga terapia psicoanalitica ha restituito Maria_i a se stessa_i.
“A long psychoanalytic therapy restored Maria to herself.”

이탈리아어도 이중타동사가 여격구문만 지니며 여격 표지 *a*는 향격 표지로도 사용된다. 그러므로 (36)의 여격구문은 “소유이전”과 “소유물 이동”을 모두 나타낸다. 그렇지만 이탈리아어도 각 해석에 부합되게 여격구문의 통사구조가 달라진다. (36a)는 소유주 간접목적어가 대상 직접목적어를 성분통어하고, (36b)는 대상 직접목적어가 도착점 간접목적어를 성분통어한다. 이렇게 이탈리아어 여격구문도 통사적 중의성을 지녀 의미역 위계에 부합된 구조를 지니므로 또 하나의 이중타동사 구문을 갖지 않는다.

한편 Pineda (2011)에 의하면, 스페인어, 카탈로니아어, 포르투갈어, 루마니아어도 프랑스어, 이탈리아어와 같은 행태를 보인다. 이 언어들은 모두 여격 표지가 향격 표지로도 사용된다. 그리고 아래 예 (37-40)에서 보는 것처럼, 여격구문이 구조적 중의성을 지녀서 간접목적어가 직접목적어를 성분통어하는 구조와 직접목적어가 간접목적어를 성분통어하는 구조를 둘 다 지닌다. 따라서 이 구문들은 의미역 위계에 부합된 구조를 지닌다.

(37) 스페인어(Pineda 2011)

- a. Jean presenta cada profesor a sus alumnos.
“Jean presents each professor to his students.”
- b. El tratamiento devolvió la estima de sí misma a María.²⁷⁾

27) Demonte (1995)에 의하면, 스페인어는 (37b)와 같이 “소유이전” 해석을 지닐 때는 “소유물 이동” 해석과 달리, 간접목적어 접사대명사가 반드시 구문에 중첩해서 나타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이 옳은 것이라면 스페인어는 이후에 보게

“The treatment restored self esteem to Mary.”

(38) 카탈로니아어(Pineda 2011)

a. Jean presenta cada professor als seus alumnes.

“Jean presents each professor to his students.”

b. El tractament va tornar l'estima de si mateixa a la Maria.

“The treatment restored self esteem to Mary.”

(39) 포르투갈어(Pineda 2011)

a. Jean apresentados a cada professor para seus alunos.

“Jean presents each professor to his students.”

b. Jean introduziu seus alunos para cada professor.

“Jean introduces his students to each professor.”

(40) 루마니아어(Pineda 2011)

a. Jean prezentat fiecare profesor elevilor săi,

“Jean presents each professor to his students.”

b. Jean introdus elevii ei la fiecare profesor.

“Jean introduces his students to each professor.”

그러므로 로망스어에 속해 있는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카탈로니아어, 포르투갈어, 루마니아어는 이중타동사 여격구문이 모두 같은 행태를 보이며 단일 여격구문을 갖는다.

다음은 조르지아어의 경우이다. 이 언어는 앞서 본 프랑스어 등의 로망스어와 달리, 여격/향격이 형태적으로 구별된다. 조르지아어의 이중타동사 여격구문은 간접목적어가 여격 표지를 지닐 때 “소유이전” 해석만 지니고 (41b)처럼 소유주 간접목적어는 대상 직접목적어를 성분통어하지, (41a)처럼 대상 직접목적어가 소유주 간접목적어를 성분통어하지 못한다.²⁸⁾

될 한 쌍의 여격구문을 갖는 부류의 언어에 속한다.

(41)

- a. *nino-m a-nax-a **gela_i** **tav-is tav_i-s.**
 Nino.ERG R-show-3AOR Gela_i.NOM self-GEN self_i-DAT
 “Nino showed **Gela_i** to **himself_i**.”
- b. nino-m a-nax-a **gela_i-s** **tav-is tav_i-i.**
 nino.ERG R-show-AOR Gela_i-DAT self-GEN self_i-NOM
 “Nino showed **himself_i** to **Gela_i**.” (McGinnis 1995)

독일어도 조르지아어와 같은 경우로 여격/향격이 형태적으로 구별되고 소유이전 이중타동사 여격구문의 간접목적어는 여격 표지를 지닐 때 “소유이전” 해석만 지니며 (42)에서 보는 것처럼, 소유주 간접목적어가 대상 직접목적어를 성분통어한다. 그러므로 이 두 언어의 여격구문은 “소유이전”을 표현할 때 의미역 위치에 부합된 통사구조를 지닌다. 그러므로 또 하나의 소유이전 표현의 이중타동사 구문을 갖지 않는다.

(42)

- a. Otto zeigte **jedem_i** **sich selbst_i.**
 Otto showed everybody_i.DAT himself_i.ACC
 “Otto showed himself to everybody.”
- b. Otto zeigte **jedem_i Studenten** **seine_i** Aufgabe.
 Otto showed every_i student.DAT his_i.ACC exercise
 “Otto showed his exercise to every student.” (Brandt 2003)

조르지아어, 독일어와 같은 행태를 보이는 언어로 힌디어, 우르두어, 러시아어, 체코어가 있다. Malhotra (2011)에 의하면 힌디어와

28) 이와 반대로 조르지아어 이중타동사 여격구문의 간접목적어가 향격 표지를 지닐 때는 “소유물 이동” 해석만을 지니고 대상 직접목적어가 도착점 간접목적어를 성분통어한다. 이는 이후 살펴볼 향격/여격의 형태구별이 있는 또 다른 언어들은 독일어, 힌디어, 우르두어, 러시아어, 체코어의 경우도 동일하다.

우르두어, Dyakonova (2007)에 의하면 러시아어, Dvořák (2008)에 의하면 체코어도 동일한 행태를 보인다.

이 언어들은 모두 여격/향격이 형태적으로 구별되고 이중타동사 여격구문의 간접목적어가 여격 표지를 지닐 때, 아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유주 간접목적어가 대상 직접목적어를 성분통어하지, 대상 직접목적어가 소유주 간접목적어를 성분통어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 “소유이전” 표현 여격구문은 의미역 위계에 부합된 통사구조를 지녀서 또 하나의 소유이전 표현 이중타동사 구문을 갖지 않는다.

(43) 힌디어와 우르두어(Malhotra 2011)

- a. maiN-ne har lekhaki-ko us-kiii kitaab dii
 I-Erg each author-Dat he-Gen book gave
 “I gave each author his book.”
- b. *maiN-ne us-ke lekhak -ko hari kitaab dii
 I-Erg it-Gen author-Dat each book gave
 “I gave its author each book.”

(44) 러시아어(Dyakonova 2007)

- a. Marina predstavila [svoih družej]_i drug drugu_i.
 Marina.Nom introduce.Pst self friends.Acc each other.Dat
 “Marina introduced her friends to each other.”
- b. *Marina predstavila drug druga_i [svoim družjam]_i.
 Marina.Nom introduce.Pst each other.Acc self friends.Dat
 “Marina introduced each other to her friends.”

(45) 체코어(Dvořák 2008)

- a. Každému dělníkovi byla dána jehoi mzda.
 every worker.DAT was given his payment.NOM
 “Every worker was given his payment.”
- b. *Jejímu majiteli byla dána každá mzda.
 his owner.DAT was given every payment.NOM

“His owner was given every payment.”

다음은 아일랜드어의 경우이다. 아일랜드어는 프랑스어나 조르지아어와는 또 다른 이유로 소유이전 표현 이중타동사가 단일 여격구문을 갖은 언어이다.

아일랜드어는 여격/향격의 구별이 없다. 그리고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소유이전 이중타동사 여격구문에서 직접목적어가 간접목적어를 성분통어한다.

(46)

- a. *Minā* *esittelin* *Liisan* *ja* *Marin* *toisilleen.*
 I-NOM introduced Liisa-ACC and Mari-ACC each-other-ALL-Px34
 “I introduced Liisa and Mari to each other.”
- b. **Thug* *Míleó* *a_i* *pheann-fhéin do* *chuile_i* *bhuqchqill.*
 gave Milo his_i pen-self to every_i boy
 “Milo gave every body his pen.” (Harley 2002)

그러므로 일견 아일랜드어는 영어와 같은 양상을 보인다. 그렇지만 아일랜드어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장소/소유주 논항의 구별이 없고 대상 논항이 장소 논항을 지배하는 통사구조만 지닌 언어이다. 그러므로 아일랜드어의 여격구문은 “소유이전”이 아닌 “소유물 이동” 해석만 지니고 직접목적어는 대상 의미역, 간접목적어는 도착점 의미역을 부여받음으로, 의미역 위계와 통사 구조 사이의 부조화가 없다.

즉 이 언어의 여격구문은 “소유이전”을 아예 표현할 수 없어서 “소유물 이동”의 개념으로 “소유이전”을 표현하는 언어라 할 수 있다. 이 언어의 여격구문은 이런 식으로 “소유이전”을 표현할 때 통사-의미 간 부조화가 없어서 “소유이전”을 표현하는 또 하나의 여격구문을 갖지 않는다.

한국어도 아일랜드어와 같은 유형의 언어이다. 한국어도 장소/소유주의 구별이 없다. 그렇지만 한국어는 아일랜드어와 달리, 항상 장소 논항이 대상 논항을 지배하는 언어이다. 그러므로 한국어 여격구문도 “소유물 이동”만을 나타내며 의미역 위계와 통사 구조 사이의 부조화가 없다.

아일랜드어, 한국어와 같은 행태를 보이는 언어로 핀란드어와 타히티어가 있다. Kaiser (2002)에 따르면 핀란드어는 “존재”와 “소유” 개념의 구별이 없는 언어이다. Snyder (2003)에 따르면 타히티어도 그러하다. 그러므로 이 두 언어는 장소 논항만 있지 소유주 논항은 없는 언어이다. 그런데 아래 예문에서 보는 것처럼, 두 언어의 여격구문은 모두 대상 논항이 장소 논항을 성분통어하는 구조를 이룬다.

그러므로 아일랜드어, 한국어, 핀란드어, 타히티어의 여격구문도 의미역 위계와 통사 구조 사이의 부조화가 없어서 “소유이전” 표현을 위한 또 하나의 이중타동사 구문을 갖지 않는다.

(47) 핀란드어(Kaiser 2002)

- a. Minä esittelin Liisan ja Marin toisilleen.
I-NOM introduced Liisa-ACC and Mari-ACC each-other-ALL-Px34
“I introduced Liisa and Mari to each other.”
- b. *Minä esittelin toisensa Liisalle ja Marille.
I-NOM introduced each-other-ACC-Px3 Liisa-ALL and Mari-ALL
“I introduced each other to Liisa and Mari.”

(48) 타히티어(Snyder 2003)

- *?Ua horo'a Peu 'i te 'anani tō 'oia 'i pauroa fa'ehau
Past give Peu Marker the orange Poss 3.sg Marker every soldier
“Peu gave his orange to every soldier.”

VI. 여격구문 쌍의 이중타동사 구문 분석

제6절에서는 이중타동사 구문이 여격구문 쌍으로 실현되는 언어를 살펴보겠다. 이런 언어에는 크로아티아어, 불가리아어, 칸나다, 그리스어²⁹⁾, 타밀, 히브리어가 해당된다.

먼저 히브리어를 살펴본다. 이 언어는 이중타동사가 두 개의 여격구문을 지니고 여격 표지 *la-/le-*는 향격 표지로도 사용된다. (49a)의 히브리어 여격구문은 비(非)give 동사부류의 여격구문으로서 “소유이전”과 “소유물 이동”을 모두 나타낸다. 그렇지만 (49a)의 구문은 직접목적어가 간접목적어를 성분통어한다. 그러므로 이 구문은 “소유이전”을 나타낼 때는 의미역 위계에 부합되지 않는 구조를 지닌다. 그런데 히브리어는 (49b)의 또 다른 여격구문을 지닌다. 이 구문은 (49a) 구문에 대해 어순 차이가 있어서 간접목적어가 직접목적어를 선행한다. 이 (49b) 구문은 “소유이전”만을 나타내고 이 해석에 부합되게 간접목적어가 직접목적어를 성분통어한다. 그러므로 히브리어는 “소유이전” 의미에 부합되지 않는 통사구조를 지닌 여격구문(= (47a))을 갖고 이 여격구문의 의미-통사 간의 부조화를 해결하기 위해 “소유이전” 의미에 부합되는 통사 구조를 지닌 또 다른 여격구문을 갖는다.

(49)

a. dan	her'a	et	ha-tinoket_i ,	le-acma_i ,
Dan	showed		acc-the-baby _i ,	to-herself _i ,
	“Dan showed the baby to herself.”			
b. dan	her'a		la-tinoket_i ,	et acma_i ,
Dan	showed		to-the-baby _i ,	acc herself _i ,

29) 그리스어는 두 종류의 이중타동사가 있어서 어떤 이중타동사는 여격/이중목적어 구문 쌍으로 실현되고 어떤 이중타동사는 여격구문 쌍으로 실현된다.

“Dan showed the baby herself.” (Borer & Grodzinsky 1986)

히브리어와 같은 행태의 언어로 크로아티아어, 불가리아어, 칸나다, 그리스어, 타밀이 있다. Graččanin-Yuksek (2006)에 의하면, 아래 예문 (50-53)의 크로아티아어, Slavkov (2009)에 의하면, 예문 (54)의 불가리아어, Viau (2007)에 의하면, 예문 (55)의 칸나다, Anagnostopoulou (2003)에 의하면, 예문 (56)의 그리스어, Sundaresan (2006)에 의하면, 예문 (57)의 타밀도 같은 행태를 보이며 복수의 여격구문을 갖는다.

우선 크로아티아어를 살펴보자. 크로아티아어의 (50) 여격구문은 “give” 의미 표현의 여격구문으로서 “소유이전”을 나타낸다. 그렇지만 이 구문은 직접목적어가 간접목적어를 성분통어한다. 그러므로 이 구문은 의미역 위계에 부합되지 않는 구조를 지닌다. 그런데 크로아티아어는 (51)의 또 다른 구문을 지닌다. 이 구문은 (50) 구문에 대해 어순 차이가 있어서 간접목적어가 직접목적어를 선행한다. 이 (51) 구문은 “소유이전” 해석에 부합되게 간접목적어가 직접목적어를 성분통어한다. 그러므로 크로아티아어도 “소유이전”을 나타낼 때는 의미역 위계에 부합되지 않는 구조의 여격구문을 갖고 이런 여격구문의 의미 구조와 통사 구조의 부조화를 해결하기 위해 “소유이전” 의미구조에 부합되는 통사 구조를 지닌 또 다른 여격구문을 갖는다.

크로아티아어의 또 다른 여격구문을 보자. (52) 구문은 비(非)give 동사부류의 여격구문으로서 “소유이전”과 “소유물 이동”을 모두 나타낸다. 왜냐하면 크로아티아어의 여격 표지는 향격 표지로도 사용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52) 구문은 직접목적어가 간접목적어를 성분통어한다. 그러므로 이 구문은 “소유이전”을 나타낼 때는 의미역 위계에 부합되지 않는 통사구조를 지닌다. 그런데 이 여격구문은

(53)의 또 다른 여격구문을 대응구문으로 지닌다. 이 구문도 (52) 구문에 대해 어순 차이가 있어서 간접목적어가 직접목적어를 선행한다. (53) 구문은 “소유이전”만을 나타내고 이 해석에 부합되게 간접목적어가 직접목적어를 성분통어한다. 그러므로 크로아티아어는 “소유이전” 의미구조에 부합되지 않는 통사구조의 여격구문을 갖고 이런 의미-통사 간의 부조화를 해결하기 위해 “소유이전” 해석에 부합되는 통사구조를 지닌 또 다른 여격구문을 갖는다.

(50) 크로아티아어(Graččanin-Yukse 2006)

- a. Ivan je dao [svaku knjigu]_i njezinom_i vlasniku.
 Ivan Aux given [every.Acc book.Acc] her.Dat owner.Dat
 “Ivan gave [every book]_i to its_i owner.”
- b. *Ivan je dao njegovu_i knjigu [svakom studentu]_i.
 Ivan Aux given his.Acc book.Acc [every.Dat student.Dat]
 “Ivan gave his_i book to [every student]_i.”

(51) 크로아티아어(Graččanin-Yukse 2006)

- a. Ivan je [svakom studentu]_i dao njegovu_i knjigu.
 Ivan Aux [every.Dat student.Dat] given his.Acc book.Acc
 “Ivan gave [every student]_i his_i book.”
- b. *Ivan je njezinom_i vlasniku dao [svaku knjigu]_i.
 Ivan Aux her.Dat owner.Dat given [every.Acc book.Acc]
 “Ivan gave its_i owner [every book]_i.”

(52)

Mia je poslala knjigu Vidu u Zagreb.
 Mia Aux sent book.ACC Vid.DAT in Zagreb.ACC
 “Mia sent the book to Vid in Zagreb.”

(53)

Mia je Vidu poslala knjigu u Zagreb.

Mia Aux Vid.DAT sent book.ACC in Zagreb.ACC
 “Mia sent Vid the book to Zagreb.”

다음은 불가리아어이다. 불가리아어의 (54a) 여격구문은 비(非)give 동사부류의 여격구문으로서 “소유이전”과 “소유물 이동”을 모두 나타낸다. 불가리아어어의 여격 표지 *na*는 향격 표지로도 사용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 구문은 직접목적어가 간접목적어를 성분통어하므로 “소유이전” 의미에는 부합되지 않는 통사구조를 지닌다. 그런데 불가리아어는 (54b)의 또 다른 구문을 지닌다. 이 구문은 (54a) 구문에 대해 차이가 있어서 간접목적어 접사대명사가 중첩 clitic doubling해서 나타난다. 그리고 이 (54b) 구문은 “소유이전” 해석에 부합되게 간접목적어가 직접목적어를 성분통어한다. (54c) 구문도 “소유이전” 해석에 부합되게 간접목적어가 직접목적어를 성분통어하는 또 다른 여격구문의 예이다. 그러므로 불가리아어도 “소유이전”을 나타낼 때는 의미역 위계에 부합되지 않는 구조의 여격구문을 갖고 이런 여격구문의 의미-통사 간의 부조화를 해결하기 위해 “소유이전” 의미구조에 부합되는 통사구조를 지닌 또 다른 여격구문을 갖는다.

(54) 불가리아어(Slavkov 2009)

- a. Várnaxme rečnika_i na negovija_i sobstvenik.
 returned_{2PL} the dictionary to its owner
 “We returned the dictionary to its owner.”
- b. *Várnaxme mu_i rečnika_i na negovija_i sobstvenik.
 returned_{2PL} CL_{DAT} the dictionary to its owner
 “We returned its owner the dictionary.”
- c. Otkazaxme mu_i negovija_i ček na rabotnika_i.
 denied_{1PL} CL_{DAT} his check to the worker
 “We denied the worker his check.”

다음은 칸나다이다. 칸나다의 (55a) 여격구문은 비(非)give 동사부류의 여격구문으로서 “소유이전”과 “소유물 이동”을 모두 나타낸다. 칸나다의 여격 표지 *-ige*는 향격 표지로도 사용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 구문은 직접목적어가 간접목적어를 성분통어하므로 “소유이전” 의미에는 부합되지 않는 구조를 지닌다. 그런데 칸나다는 (55b)의 또 다른 여격구문을 지닌다. 이 구문은 (55a) 구문에 대해 차이가 있어서 동사에 수혜접사 *benefactive affix*가 붙어 있다. 이 (55b) 구문도 “소유이전”과 “소유물 이동”을 모두 나타낸다. 그렇지만 이 구문은 간접목적어가 직접목적어를 성분통어한다. 그러므로 이 구문은 “소유물 이동” 의미에 부합되지 않는 구조를 지닌다.

칸나다는 (55c)와 (55d)의 또 다른 여격구문을 지닌다. (55c) 구문은 (55a) 구문에 대해 차이가 있어서 간접목적어가 직접목적어를 선행한다. 이 구문은 “소유이전” 해석만 지니고 이 해석에 부합되게 간접목적어가 직접목적어를 성분통어한다. (55d) 구문은 (55c) 구문처럼 간접목적어가 직접목적어를 선행하고 동사에 수혜접사가 붙어 있는 구문이다. 이 구문도 “소유이전” 해석만 지니고 이 해석에 부합되게 간접목적어가 직접목적어를 성분통어한다. 그러므로 칸나라도 “소유이전” 또는 “소유물 이동”을 나타낼 때, 의미역 위계에 부합되지 않는 통사구조의 여격구문을 갖고 이런 여격구문의 의미-통사 간의 부조화를 해결하기 위해 “소유이전” 또는 “소유물 이동”의 의미구조에 부합되는 통사구조를 지닌 또 다른 여격구문을 갖는다.

(55) 칸나다(Viau 2007)

- a. *Rashmi avan-a kudure-yannu pratiyobba hudugan-ige tan-d-aLu
 Rashmi 3SM-Gen horse-Acc every boy-Dat return-Pst-3SF
 “Rashmi returned his horse to every boy.”
- b. Rashmi avan-a kudure-yannu pratiyobba hudugan-ige tan-du-koTT-aLu
 Rashmi 3SM-Gen horse-Acc every boy-Dat return-PPL-Ben.Pst-3SF
 “Rashmi returned his horse to every boy.”

- c. Rashmi pratiyobba hudugan-ige avan-a kudure-yannu tan-d-aLu
 Rashmi every boy-Dat 3SM-Gen horse-Acc return-Pst-3SF
 “Rashmi returned every boy his horse.”
- d. Rashmi pratiyobba hudugan-ige avan-a kudure-yannu tan-du-koTT-aLu
 Rashmi every boy-Dat 3SM-Gen horse-Acc return-PPL-Ben.Pst-3SF
 “Rashmi returned every boy his horse.”

다음은 그리스어를 살펴보자. 그리스어의 (56a) 여격구문은 비(非)give 동사부류의 구문으로서 “소유이전”과 “소유물 이동”을 모두 나타낸다. 그리스어도 여격/향격이 같은 표지를 지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 구문은 “소유이전” 의미에는 부합되지 않는 구조를 지닌다. 그런데 그리스어는 (56b)의 또 다른 여격구문을 지닌다. 이 구문은 (56a) 구문에 대해 어순 차이가 있어서 간접목적어가 직접목적어를 선행하고 간접목적어가 여격이 아닌 속격 형태를 취한다. 이 (56b) 구문은 “소유이전” 해석에 부합되는 구조를 지닌다. 그러므로 그리스어도 “소유이전”을 나타낼 때는 의미역 위계에 부합되지 않는 구조의 여격구문을 갖고 이런 여격구문의 의미-통사 간의 부조화를 해결하기 위해 “소유이전” 의미구조에 부합되는 통사구조를 지닌 또 다른 여격구문을 갖는다.

(56) 그리스어(Anagnostopoulou, 2003)

- a. O Gianis estile to gramma stin Maria
 the Gianis_{Nom} sent_{3SG} the lettre_{Acc} to-the Maria_{Acc}
 “John sent the letter to Mary.”
- b. O Gianis estile tis Maria to gramma
 the Gianis_{Nom} sent_{3SG} the Maria_{Gen} the lettre_{Acc}
 “John sent Mary the letter.”

다음은 타밀이다. 아래 (57a)의 타밀 여격구문은 비(非)give 동사부류의 구문으로서 “소유이전”과 “소유물 이동”을 모두 나타낸다.

타밀도 여격과 향격이 같은 표지를 지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Sundaresan (2006)에 의하면, 이 구문은 “소유이전” 의미에 부합되지 않는 구조를 지닌다. 그래서 타밀은 (57b)의 또 다른 여격구문을 지닌다. 이 구문은 (57a) 구문에 대해 차이가 있어서 동사에 수혜접사 *-kudu-*가 붙어 있는 구문이다. 그리고 Sundaresan (2006)에 의하면, 이 (57b) 구문은, “소유이전” 해석에 부합되는 통사구조를 지닌다. 그러므로 타밀도 “소유이전”을 나타낼 때는 의미역 위계에 부합되지 않는 구조의 여격구문을 갖고 이런 여격구문의 의미-통사 간의 부조화를 해결하기 위해 “소유이전” 의미에 부합되는 통사구조를 지닌 또 다른 여격구문을 갖는다.³⁰⁾

(57) 타밀(Sundaresan 2006)

- | | | | | |
|----|-----------------------------|------------|-------------|-----------------|
| a. | n̄an | raman-ukku | korenday-ai | kudu-tt̄en |
| | I-NOM | raman-DAT | book-ACC | gave-1sg |
| | “I gave the book to Raman.” | | | |
| b. | n̄an | raman-ukku | korenday-ai | kudu-kudu-tt̄en |
| | I-NOM | raman-DAT | book-ACC | gave-Ben-1sg |
| | “I gave Raman the book.” | | | |

VII. 이중타동사 구문 분석의 종합

제7절에서는 27개 언어의 이중타동사 구문 분석 결과를 종합, 정리한다.

30) 예문 (56-57)은 이상의 그리스어와 타밀 이중타동사 구문에 대한 진술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간접목적어 간의 통어관계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다. 이는 통어관계를 입증할 적절한 예문을 찾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상의 그리스어와 타밀 이중타동사 구문에 대한 진술은 Anagnostopoulou (2003)과 Sundaresan (2006)의 분석에 각각 근거한 것이다.

우선 27개 언어의 소유이전 이중타동사 구문은 다음과 같은 분류 될 수 있다. 27개 대상언어는 이중타동사가 여격구문으로 실현되느냐 아니면 여격/이중목적어구문 쌍으로 실현되느냐에 따라 두 부류로 나뉘지만 여격구문으로만 실현되는 부류의 언어는 다시 2개의 부류로 나뉜다. 즉 단일 여격구문으로 실현되는 언어와 두 개의 여격구문으로 실현되는 언어로 나뉜다.³¹⁾ 그리고 단일 여격구문으로 실현되는 언어도 그 여격구문이 지닌 통사적 성격에 따라 다시 세 종류로 구분된다.

이렇게 유형적으로 구분되는 이중타동사구문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 결과를 좀 더 자세하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A. 이중타동사가 여격/이중목적어 구문 쌍으로 실현되는 언어
- 영어, 중국어, 네덜란드어, 아랍어, 덴마크어, 그리스어
 - “소유/존재” 개념이 어휘-통사적으로 구분되고 여격/향격 표지가 동일하다.
 - 여격구문은 “소유이전”과 “소유물 이동” 해석을 지닌다.
 - 여격구문은 직접목적어가 간접목적어를 성분통어하는 구조를 지녀서 “소유이전” 해석에 부합되는 통사구조를 이루지 못한다.
 - “소유이전” 해석에 부합되는 통사구조를 이루기 위해 이중목적어구문을 갖는다.
- B. 이중타동사가 한 쌍의 여격구문으로 실현되는 언어
- 크로아티아어, 불가리아어, 칸나다, 그리스어, 타밀, 히브리어
 - “소유/존재” 개념이 어휘-통사적으로 구분되고 여격/향격 표지가 동일하다.
 - 여격구문은 “소유이전”과 “소유물 이동” 해석을 지닌다.

31) 단 칸나다만은 두 쌍의 여격구문을 갖는다.

- 한 쌍의 여격구문 중 한 여격구문은 직접목적어가 간접목적어를 성분통어하는 구조를 지녀서 “소유이전” 해석에 부합되는 통사구조를 이루지 못한다.
- “소유이전” 해석에 부합되는 통사구조를 이루기 위해 또 하나의 여격구문을 갖는다.

C-1. 이중타동사가 단일 여격구문으로 실현되는 언어(1)

- 조르지아어, 독일어, 힌디어, 우르두어, 러시아어, 체코어
- “소유/존재” 개념이 어휘-통사적으로 구분되고 여격/향격 표지가 서로 다르다.
- 여격 표지의 여격구문은 “소유이전” 해석만 지니고 향격 표지의 여격구문은 “소유물 이동” 해석만 지닌다.
- 여격 표지의 여격구문은 간접목적어가 직접목적어를 성분통어하여 “소유이전” 해석에 부합되는 통사구조를 이룬다.

C-2. 이중타동사가 단일 여격구문으로 실현되는 언어(2)

-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카탈로니아어, 포르투갈어, 루마니아어
- “소유/존재” 개념이 어휘-통사적으로 구분되고 여격/향격 표지가 동일하다.
- 여격구문은 “소유이전”과 “소유물 이동” 해석을 지닌다.
- 여격구문은 간접목적어가 직접목적어를 지배하는 구조와 직접목적어가 간접목적어를 지배하는 구조를 함께 지녀 두 해석에 모두 부합되는 통사구조를 이룬다.

C-3. 이중타동사가 단일 여격구문으로 실현되는 언어(3)

- 아일랜드어, 한국어, 핀란드어, 타히티어
- “소유/존재” 개념이 어휘-통사적으로 구분되지 않고 여격/향

격 표지가 동일하다.

- 여격구문은 “소유물 이동” 해석만 지닌다.
- 여격구문은 직접목적어가 간접목적어를(단 한국어는 간접목적어가 직접목적어를) 성분통어하여 “소유물 이동”에 부합되는 통사구조를 이룬다.

VIII. 결 론

이 연구는 27개 언어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 소유이전 표현 이중타동사 구문의 통사-의미 구조 간의 부조화가 없는 언어는 모두 하나의 여격구문을 갖지만 통사-의미 간의 부조화를 보이는 여격구문을 갖는 언어는 또 하나의 구문을 갖는데 이 또 하나의 구문은 영어의 경우처럼 이중목적어구문으로 실현되기도 하고 히브리어처럼 또 다른 형태의 여격구문으로 실현되기도 한다는 귀납적 결론에 도달하였다.

그리고 이 연구는 이 귀납적 결론에 입각하여 복수의 이중타동사 구문을 지니는 언어는 복수의 이중타동사 구문 중 하나인 무표향 구문이 통사-의미 구조 간의 부조화를 보여서 이 부조화를 해소하기 위해 또 하나의 유표향 구문을 갖는 것이고 단일 이중타동사 구문을 지니는 언어는 이 단일 구문이 통사-의미 구조 간의 조화를 보이기 때문에 또 다른 구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설명 가설을 제시했다.

그렇지만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와 의문점을 남기고 이를 후속 연구 과제로 넘긴다.

첫째, 이 연구의 결론은 더 많은 언어의 자료를 포함한 추가적 데이터의 검증을 통해 확인될 필요가 있다.

둘째, 이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은 일련의 후속 질문을 던지게

한다. 이 연구의 대상언어들에서 무표향 이중타동사 구문은 모두 여격구문의 형태를 지닌다. 그렇다면 왜 무표향 이중타동사 구문은 여격구문 형태를 띠는가? 여격구문은 언어보편적으로 이중타동사 구문의 무표향 구문인가? 한편 유표향 이중타동사 구문은 왜 어떤 언어에서는 이중목적어구문으로 실현되고 또 다른 언어들에서는 여격구문으로 실현되는가?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은 나머지 두 유형의 이중타동사 구문, 즉 이중목적어구문으로만 실현되는 이중타동사 구문 그리고 수령주 논항이 직접목적어, 대상 논항이 간접목적어로 나타나는 구문으로만 실현되는 이중타동사 구문의 실현 방식을 설명하는 데에도 이 연구의 설명가설은 계속 유효할 것인가?

이 연구가 제시하는 결론은 27개 대상언어에 대해서는 기술적, 설명적 적합성 *descriptive and explicative adequacy*을 보인다. 그렇지만 이 연구의 결론은 이상의 일련의 질문을 던지게 한다. 그러므로 이상의 질문들에 대한 답을 나올 때, 이 연구의 결론이 지니는 기술적, 설명적 적합성은 더 분명하게 판단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종명, 2013, 『한국어와 프랑스어 형용사의 대조연구 - 언어유형론적 분석과 관점을 중심으로』, 도서출판 만남.
- 유종숙, 2002, 「프랑스어 좌치 구문의 정보구조와 담화효과」, 『인문사회과학연구』 2권, 101-118.
- Alsadoon, R., 2011, «Non-derivational approach to ditransitive constructions in MSA», *Working Papers of the Linguistics Circle of the University of Victoria* 21, 52-60
- Anagnostopoulou, E., 1999, «On clitics, Feature Movement, and Double Object Alternation», *Proceeding of NELS* 29, 41-55.
- Anagnostopoulou, E., 2003, *The syntax of ditransitives: Evidence from clitics*, Mouton de Gruyter.
- Anderson, M., 2006, «Affectedness», in M. Everaert and alii (eds.), *The Blackwell Companion to Syntax*, Blackwell.
- Aoun, J. & Li, Y.-H.A., 1989, «Scope and constituency», *Linguistic Inquiry* 20: 141-172.
- Aristar, A. R., 1996, «The Relationship Between Dative and Locative - Kurylowicz's Argument from a Typological Perspective», *Diachronica* 13:2. 207-224.
- Baker, M., 1989, «Object Sharing and Projection in Serial Verb Constructions», *Linguistic Inquiry* 20: 513-553.
- Borer, H. & Y. Grodzinsky., 1986, «On the derivation of Hebrew double objects - a functional imaging investigation», ms, unpublished.

- Brandt, P., 2003, «Number Repairs: Double Object Binding in German (and some Romance)», ms, University of Cologne.
- Bresnan, J. & J. Kanerva, 1989, «Locative Inversion in Chichewa: A Case Study of Factorization in Grammar», *Linguistic Inquiry* 20: 1-50.
- Büring, D., 2003, *Binding Theo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hung, S., 1976, «An object creating rule in Bahasa Indonesia», *Linguistic Inquiry* 7, 41-87.
- Colleman, T., 2007, «The Ditransitive Constructions of Dutch», in *Proceedings on the Conference on Ditransitive Constructions*, Max Planck Institute for Evolutionary Anthropology.
- Demonte, V., 1995, «Dative alternation in Spanish», *Probus* 7.1, 5-30.
- Dryer, M., 1986, «Primary Objects, Secondary Objects, and Antidative», *Language* 62, 808-845.
- Dryer, M. & D. Gil & B. Comrie (eds.), 2005, *The World Atlas of Language Structures*. Oxford University Press, 426-429.
- Dvořák, V., «On the Syntax of Ditransitive Verbs in Czech». Ms, The State University of New Jersey.
- Dyakonova, M., 2007, «Russian Double Object Constructions», *ACL Working Papers 2:1*, 3-30. on *Ditransitive Constructions*, Max Planck Institute for Evolutionary Anthropology.
- Giorgi, A. & G. Longobardi, 1991, *The syntax of noun phrases: Configuration, parameters, and empty categori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ivón, T., 1984, *Syntax : A Functional Typological Introduction*, v.1,

-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Graččanin-Yuksek, M., 2006, «Double Object Construction in Croatian: Arguments Against Appl⁰», Ms, MIT.
- Hale, K. & J. Keyser, 2002, «Conflation», Ms, MIT.
- Harley, H., 2002, «Possession and the double object construction», *Linguistic Variation Yearbook* 2, 31-70,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Harrell, R. S., 2004, *A Short Reference Grammar of Moroccan Arabic*, Georgetown University Press.
- Haspelmath, M., 2003, «The Geometry of Grammatical Meaning: Semantic Maps and Cross-Linguistic Comparison», In M. Tomasello (eds.), *The New Psychology of Language : Cognitive and functional Approaches to Language Structure*.
- Haspelmath, M., 2005, «Ditransitive Constructions: The Verb “Give”». In M. Haspelmath & M. S. Dryer & D. Gil & B. Comrie (eds.) *The World Atlas of Language Structures*. Oxford University Press, 426-429.
- Haspelmath, M., 2006. «Ditransitive Constructions in the World’s Languages. Lecture in Leipzig Spring School on Linguistic Diversity». Max Planck Institute for Evolutionary Anthropology.
- Hole, D., Meinunger A. & Abraham, W., 2006, *Datives and Other cases*,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Jackendoff, R., 1990, *Semantic Structures*, Cambridge: MIT Press.
- Johnson, K., 1991, «Object positions», *Natural Language and Linguistic Theory* 9, 577-636.
- Kaiser, E., 2002, «The syntax-pragmatics interface and Finnish

- ditransitive verbs», *Proceedings of ConSOLE IX*.
- Kayne, R., 1984, *Connectedness and binary branching*, Foris, Dordrecht.
- Kim, J-M., 1998, *Lexique-grammaire des constructions adjectivales du coréen*, thèse de doctorat, Université du Québec à Montréal.
- Kim, J-M., 2004, «Linking regularity between semantics and syntax in Korean - unaccusative and unergative verb constructions», 『언어학』 제39집.
- Kim, L., 2008, «On the ditransitive construction in Korean», in *Proceedings of ConSOLE XIV*, 111-133.
- Kordoni, V., 2004, «Between shifts and alternations: ditransitive constructions», in *Proceedings of the HPSG04 Conference*.
- Krifka, M., 2003, «Semantic and Pragmatic Conditions for the Dative Alternation», in *Proceedings of 2003 KASELL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 Kuno, S., 1973, *The Structure of the Japanese Language*. Cambridge, MIT.
- Kuryiowicz, J., 1964, *The inflectional categories of Indo-European*, Heidelberg: Winter.
- Larson, R. K., 1988, «On the double object construction», *Linguistic Inquiry* 19-3: 335-391.
- Lefèvre, Cl., 1994, «New facts from Fongbe on the double object constructions», *Lingua* 94. 69-123.
- Levin, B., 2008, «Dative verbs: A Crosslinguistic Perspective», *Linguisticae Investigationes* 31, 285-312.
- Levin, B. & Rapoport, T. R., 1988, «Lexical subordination»,

Papers from the 24th Regional Meeting of the Chicago Linguistic Society, 275-289.

- Malchukov, A. & alii., 2007, «Ditransitive constructions: a typological overview», Ms, first draft.
- Malhotra, S., 2011, *Movement and Intervention Effects: Evidence from HINDI/URDU*, doctoral Thesis, University of Maryland.
- McGinnis. M., 1995, «Projection and position: Evidence from Georgian», in *Proceedings of ConSOLE IV*, 203-220.
- Miller, P. 1992, *Clitics and constituents in Phrase Structure Grammar*. London: Garland.
- Mohanan, T., 1994, *Argument Structure in Hindi*, Center for the Study of Language.
- Oyharçabal, B., 2010, «Basque ditransitive», in *Argument Structure and Syntactic Relations: A Cross-Linguistic Perspective* edited by M. Duguine, S. Huidobro, N Madariaga,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Perlmutter, D. M., 1978, «Impersonal Passives and the Unaccusative Hypothesis», in *Proceedings of the 4th Annual Meeting of the Berkeley Linguistics Society*, 157-190.
- Pineda, A. C., 2011, «Double object constructions in Romance languages revisited», in *Workshop on Syntactic Variation*.
- Pinker, S., 1989, *Learnability and Cognition: The Acquisition of Argument Structure*. The MIT Press.
- Rappaport Hovav, M. & B. Levin, 2008, «The English dative alternation: The case for verb sensitivity», *Journal of Linguistics* 44, 129-167.
- Slavkov, Nikolay., 2009, «Formal Consequences of Dative Clitic

- Doubling in Bulgaria Ditransitives : An Applicative Analysis», *Journal of Slavic Linguistics* 16-1, 139-166.
- Snyder, K., 2003, *The Relationship between form and function in ditransitive constructions*, doctoral thesis, University of Pennsylvania.
- Sundaresan, S., 2006, «The Argument Structure of Verbal Alternations in Tamil», in *Proceedings of the 25th West Coast Conference on Formal Linguistics*, 390-398.
- Tremblay, M., 1991, *POSSESSION AND DATIVES: BINARY BRANCHING FROM THE LEXICON TO SYNTAX*, doctoral thesis, McGill University.
- Van Belle W. & Van Langendonck, W. (eds.), 1996, *The Dative*,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Zhang, S., 1990, «Correlations between the double object construction and preposition stranding», *Linguistic Inquiry* 21-2, 312-316.

« Résumé »

Une étude translinguistique sur la construction du verbe ditransitif exprimant “transfert de possession”

KIM Jong Myung
(Université Nationale de Séoul)

La présente étude traite de la construction du verbe ditransitif exprimant “transfert de possession”(= la CVD), et cela dans une perspective translinguistique.

La CVD se caractérise comme ayant trois arguments, soit ceux d’Agent, de Thème et de Récipiendaire. Il s’agit d’un type de construction verbale universellement repérable. Mais cela n’empêche pas de constater qu’elle apparaît sous différente(s) structure(s) argumentale(s) à travers les langues.

En effet, dépendant de la langue, elle prend au moins une des trois tournures suivantes.

Primo, pour des langues comme l’anglais, la CVD se montre en forme d’une paire de constructions, soit, une construction à deux compléments d’objet direct (= une COD) et l’autre ayant un complément d’objet direct et un complément d’objet indirect

(= une COI).

- (1) a. I give two books to Mary. (une COD)
- b. I give Mary two books. (une COI)

Secundo, elle se réalise en une seule COI, ce qui est le cas pour des langues comme le français.

- (2) a. Je donne deux livres à Marie. (une COI)
- b. *Je donne Marie deux livres.

Enfin, quant à des langues comme le bulgare, elle apparaît sous la forme d'une paire de COI.

- (3)
- a. Várnaxme rečnika_i na negovija_i sobstvenik. (une COI)
- returned_{2PL} the dictionary to its owner
- "We returned the dictionary to its owner."
- b. Várnaxme mu_i negovija_i čnika na rasobstvenik_i. (l'autre COI)
- returned_{2PL} CL_{DAT} his dictionary to the owner
- "We returned the owner his dictionary."

C'est en faisant face à une telle diversité formelle de la CVD que nous nous sommes demandé pourquoi cette construction varie d'une langue à l'autre parmi ces trois formes et comment une explication plausible y serait attribuable.

C'est afin de répondre à ces questions que nous avons examiné les CVD de 27 langues qui se divisent en trois classes en fonction de leur forme. Et c'est au bout de leurs analyses que nous

en proposons une hypothèse explicative qui suit:

Primo, au cas où la CVD dispose d'une paire de constructions, peu importe que cette paire soit composée d'une COD et une COI ou de deux COI. Une COI de cette paire détient une asymétrie entre ses structures syntaxique et sémantique. Donc afin de se faire remédier au déséquilibre syntactico-sémantique, elle a besoin d'une autre CVD qui soit harmonieuse entre ses structures syntaxique et sémantique. Cette CVD supplémentaire se réalise soit en une COD, soit en une COI, dépendamment de la langue.

Secundo, au cas où la CVD apparaît en une seule construction du type COI, elle est symétrique entre ses structures syntaxique et sémantique. C'est ainsi qu'elle n'a pas besoin d'une autre CVD supplémentaire qui vienne combler son éventuel défaut.

주제어 : 이중타동사, 수령주, 이중목적어구문, 통사 구조와 의미 구조
간의 부조화, 의미역 위계

Mots-clés : verbe ditransitif, Réciendaire, construction à deux
compléments d'object direct, asymétrie entre les structures
syntaxique et sémantique, hiérarchie thématique

논문 투고일 : 2015년 10월 28일

심사 완료일 : 2015년 11월 30일

게재 확정일 : 2015년 11월 30일